

대림 제1주일

기도서 209면 (다해)

제1독서: 예 레 33, 14-16

제2독서: I 데살 3, 12-4, 2

복 음: 루 가 21, 25-28, 34-36

숲 정 이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루가 21, 27).

강론

소리

민주화의 대림

“5공화국 지배자들의 명예로운 처신을 보고싶다”

이 수현 신부 / 전동주임

전례력의 대림(待臨)은 희랍어 “파루시아”로서 그 본 뜻은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다가온다”는 데에 있다. 즉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시며 실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이시고 열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분 “메시아”가 곧 오신다, 곧 나타나신다라는 사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단속하며 그분이 오실 때에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스라엘사람들은 이러한 날이 내일 곧 닥칠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바로 그때 오실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 특히 억압받던 노동자, 농민, 빈민 그리고 노예들은 오직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기대하며 그분의 출현을 기다렸다. 그러나 왕과 귀족들과 사제 등 기득권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그분의 파루시아에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분이 주실 자유와 해방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원치를 않고 그저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안주하려고만 하였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병폐는 더욱 심화하였다. 그러나 그 분은 때가 차면서 서서히 당시 백성에게 다가 오셨다.

파루시아는 시대의 변천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민중은 지금 파루시아를 바라보고 산다. 그것은 바로 사회 민주화이다. 이것은 우리 민중에게 절대적이다. 많은 생명이 이 때문에 제단에서 바쳐졌다. 지금도 많은 생명이 희생 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민중의 의식 발전과 자각은 민주화의 파루시아를 앞당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현 사회질서 안에서 기득권자들 안에 끼고 있는 사제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제는 예언자이다.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예언자이다. 분명히 예언자는 시대와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직무를 지닌 사람이다. 그야말로 시대의 징표를 정확히 읽고 하느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선두에 나서는 것이 사제이지, 우두커니 “되어 가는 것만 바라 보는” 것이 사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한 사제의 테러사건마저도 별 관심없이 방관해 버리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한다. 부추기는 이념은 쟁에 휘말려 앞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 역시 안스럽다. 어쩌든 그분이 오셨듯이 이 땅의 민주화는 온다.

지금은 민주화의 파루시아 과정이다.

지난 16일 선거에서 파키스탄 민중의 희망임을 입증했던 베나지르 부토여사는 독재자의 손에 아버지가 처형당한 후 반정활동에 적극 참여 투옥과 국외추방 등 가시밭길을 걸은 파키스탄의 「떠오르는 아침 해」로 비유되는 여걸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지아 군부 독재자에 처형당했던 부토여사 아버지 역시 파키스탄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독재로 유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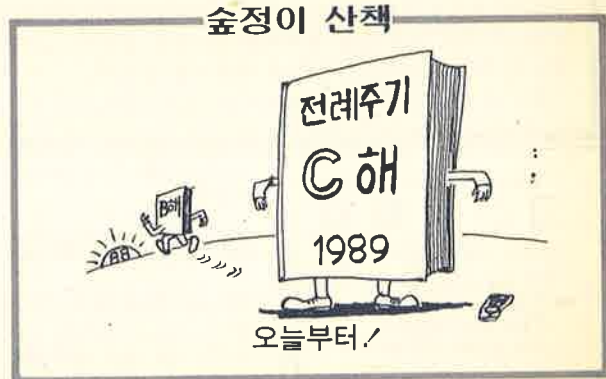
2차대전 후 세계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명멸했다. 누구에게나 그 끝이 보이는데도 독재자 자신만이 이를 보지 못하고 허망한 과거의 영화에 매달리다가 파멸하는 모습은 차라리 회극적이다.

독재자들은 예외없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많은 반대자들을 참혹하게 죽이거나 투옥한다. 그 죄과로 그들은 거꾸로 법의 심판대에 서곤한다.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독재자는 정변의 와중에서 살해된 경우다.

한국의 박정희 전대통령과 월남의 고딘 디엠, 이집트의 사다트, 파키스탄의 부토 등이다. 소모사처럼 실각후 망명지에서 사살된 경우도 있다.

마르크스, 보카사, 이디 아민, 뒤발리에 팔레비 등 세계를 뒤흔든 독재자들이 권력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고 한(?)을 안고 죽었거나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구차하고 욕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학살과 오욕으로 점철된 5공화국의 깊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겨우 민주화의 길목에 서 있다. 비참한 末路를 걸었던 독재들을 음미하며 전두환씨의 처리와 거취를 눈물 크게 뜨고 응시한다. 또한 5공화국의 서슬시퍼런던 사람들의 명예로운 처신을 보고싶다.



여호와 증인 중 70%가 가톨릭 신자 출신이라니!

지난 11월 20일자 가톨릭 신문 9면에 여호와 증인의 감독자를 지낸 최 백용(요한) 박사의 강의에서 현 여호와증인 신도 10만명중 70%가 가톨릭 신자 출신이라는 증언을 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최공치에 호되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어째서 일까? 우리 교회의 무엇이 그 많은 형제들을 떠나 가게 하였을까? 물론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리라. 갈수록 중산층화 되어가는, 있는 자들의 교회, 대형화가 물고온 소의 계층의 확대, 확신없는 껍데기 신심, 미신화된 기복 신앙, 성직자 수도자들의 무관심, 신자 재교육의 결핍 등등..... 많은 잘못이 있겠으나 이번 대림절 특집에서는 교리의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왜냐면 일반적인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그러하지만 특히 여호와증인들은 천국과 지옥 등 종말사상에 대한 독선적 사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박사는 여호와 증인

신도들은 곧 타처을 세상의 종말과 함께 약속되는 '지상낙원 과대 망상증 정신병자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즉 그들은 혼란스럽고 죄스러운 세상이 멸망하고 나타날, 지상낙원 에로의 뿔뿔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 가정까지도 포기하도록 세뇌된 '파이오니아' (개혁자)들인 것이다. 이는 진정,성서의 '종말'에 관한 사상을 잘못 이해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는 우리 교회의 실수도 있다. 즉 그동안 우리 교회가 '천국' '지옥' '연옥' 등에 대한 교리를 근본적인 의미를 외면한 채, 우화적이고 전설적이며, 신화적인 방법으로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3주간 동안 간략하게나마 우리 인간의 객관적인 종말인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서와 함께

29. 성서시대의 역사(J) : 페르샤 시대

페르샤 왕국은 두 가지 점에서 "비옥한 초생달" 내의 다른 왕국들과 달랐다. 첫째 그것은 성서 저자들에게 알려진 세계 전체를 장악한 초강대국이었고 둘째 그 왕국은 탁월한 행정력과 현명한 식민정책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원만하게 다스려 나갔다. 이 시대의 유대 역사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주요 성서적 자료로서 에즈라 1-6장을 들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우리는 자기네 전통을 고수하려는 작고 가난한 공동체를 가정할 수 있다.

페르샤왕 고레스는 바빌론에 귀양 중인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반포하였다. 이 칙령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폐허가 된 유다로 돌아가기보다는 바빌론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실제로 고향으로 발길을 옮긴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였다.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성전의 재건이었다. 고레스대왕이 건축허가를 내 주었고, 바빌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재정적 뒷바침을 해 주었다.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야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없신여기면서 그의 일을 방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성전은 마침내 완공되어 516년 봉헌식을 올렸다.

페르샤 시대의 주역은 느헤미야와 에즈라였다. 이 두 사

람은 성전 봉헌 후 유다에 정착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 왔다. 사제 에즈라는 바빌론에서 완성한 율법의 세 법전을 가져 왔다. 그의 이야기는 에즈라 7-10장과 느헤미야 8-9장에 기록되어 있다. 에즈라는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에 대해 매우 엄격했다.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 그런 불미스런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로 추대되어 선택된 백성을 분리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건설하였다. (느헤 1-7장). "그 땅의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위협을 가해 왔고 그의 일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그를 조롱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는 성벽을 완성하였다.

"그 땅의 백성들"은 721년 북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586년 남부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티나에 남겨진 유대인들과 여러 세대에 걸쳐 다른 지역에서 팔레스티나로 흘러 들어온 무리들과(에즈라에게 축출된) 바빌론 사람들과 어울려 "오염된" 반쪽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기네 고유의 율법 전서를 간직하면서 게리짐 산에 성전을 짓고 야훼께 예배를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의 원조가 되었다.

성지순례 · 신혼여행 전문
고려여행사

대표 이종길 (요한)

전통성당 옆 윤가족병원 2층

☎ 전주 84-9797, 0239

FAX : 85-9321

전주 33-3373, 태인 34-4079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상재현
25분 완성

전북칼라현상소

대표 오희용 (임부르시오)

전주시 고사동 1가 연금매점 남쪽 (오거리) ☎ 83-3335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머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전북 의료보험조합지정
김안과의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 렌즈

원장 : 김효열 (헨리크)

전은주 (베로니카)

전주 코야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 85-3020

교 구 소 식

1. 성소자 모임 : 27일(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 센터
2. 중·고 교리교사 연합회 회장단 개편 : 회장-김형태(요셉) 부회장-김소영(스텔라)
3. Gen 성가대회 수상분당 : 합창부문·최우수상-둔울동분당 우수상-진안분당 장려상-신동분당 중창부문·최우수상-중앙분당 우수상-송천분당 장려상-주현분당
4. 휘플라레 수도자 12월 모임 : 12월 1일(목) 오후2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5. 성모의 푸른 군대 피정 : 12월1일(목) 오전10시-오후4시 장소-덕진천주교회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 지참
6. 주소변경 안내 : 나춘성 신부님 (042)522-7180
김요한 신부님 219-830 강원도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164-1 동해성당
7. 베소라(초급반) 개강 : 강사-김보나 수녀, 장소-가톨릭센터 3층
(수요일 반) 12월 7일(수) 내용-성문서(요기, 시편-) 회비-3,000원
(금요일반) 12월 2일(금) 내용-요한복음, 요한묵시록 회비-매월 3,000원(일반) 1,000원(학생)

※ 축! 영명 성 안드레아(30일) : 박종근, 김태윤, 박성팔신부님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12월3일) : 고경춘신부님 축하합니다.
◎ 한국 외방 선교회 12월 성소모임 : 12월 11일 오후2시-5시 대상-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여성) 준비물-필기구 연락처-(02)923-1946·5145

가톨릭교리 신학원 병설 성바오로딸 수도회 시정각동신성서교육부 신입생모집

1.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 내용-신구약성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2년과정
 - 자격-고졸이상(교과초월)
 - 구비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 3매,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원서교부 및 접수 : 89년 1월~2월 7일까지
 - 원서대 : 3,000원(원서우송시 3,600원)
2. 신구약성서 중급과정
 - 자격 :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
 - 입학원서 및 신청서 교부처 : 전국 성바오로서원이나 본 교육부
 - 문의처 : 전주 성바오로서원 3-3398

잠깐!

가정 방문, 어떻게 준비할까?

각 분당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분당들은 봄, 가을 판공을 앞두고 전 신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지금쯤 이미 시작된 분당도 있을 것이다. 사제가 손수 자신의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영광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신자 가정자들은 저마다 그 귀하신 분의 방문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인다. 그런데 바로 그 '정성'이 문제다. 집집마다 차려진 차나 음식을 다 먹자니 소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찾아오신 사제에게 드리는 정성이 오히려 고역을 치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음식 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자! 깨끗이 집안을 정돈하고, 사제가 들어왔을 때 곧바로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사제와 수녀님, 그리고 동행하는 교우와 함께 분심없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자. 작은 탁자 위에 흰 보를 깔고, 십자고상이나 성모상, 그리고 촛불을 준비하면 좋겠다. 또한 일년동안의 가정,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가족중의 낭만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 출가한 가족들의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거들어 주며 살고 있는가? 교회 살림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교무금은 밀리지 않았는가? 내년도 교무금은 얼마나 책정 할 것인가?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등..... 한 해를 아름답고 의미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많은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겠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사제가 찾아와도 따뜻한 차 한잔 내놓을 수 없는 형제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요심이 (799)



해태우유특약점장 및 판매사원 모집

1. 모집지역 : 특약점장 - 전주·이리·임실 판매사원 - 전라지역 00명
2. 문의처 : 전주시 금일동 768-7 T. 76-3630, 75-1036



해태우유(주) 전주지점

산소를 만드는 신비

옛센스 스쿠아렌은 심해상어 간유에서 채취한 물질입니다. 임 은택(요셉) 박 집순(마리아) 전주시 중앙동1가 915 신일군생원외곽길동네 ☎ 82-0090·4-6444

태평양화학전주영업소

흥익미술학원

- '89 정규반 원아모집
- 5세 유아반 · 6세 유치반 · 7세 취학준비반
- 겨울방학특강반 모집
- 국교생반 · 유치원반 · 중등반

원장 김 승균 (아우구스티누스)
원감 이 가루 (롤리안나)
(이리 마동A.P.T. 앞)

☎ 2-8692, 51-0548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 범석 (골베)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 72-2665
75-3533

장미성치과의원

원장 장 미성 (유리안나)
효자동 우진APT 앞
☎ 84-9200

각종사무기 종합취급점

복사기·팩시밀리·전자타자기·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기 및 사무기기 전품목 취급

(주) 심도린코자 전주특약점

신도전자상사

오 중원 (이오스님) · 이 정운 (안젤라)
☎ 6-9666, 84-3678, FAX. 83-1836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석재

1.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해가 시작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한해 되기를 빕니다.
 2. 본당 연도대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입상결과-1등 소향, 2등 봉봉, 3등 미남.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대립절 기간 동안 좀더 쌀 모으기에 적극 참여합니다.
 4. 본당추수감사제: 12월 4일 제1부 미사, 제2부 한마당 잔치(점심제공)
 5. 본당후반기 신앙교육: 12월6~9일 저녁7시부터 은혜로운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6. 금주전례: 독서①김길택 ②이영희 봉헌-국영석부부
- 지난주봉헌금: 292,770원 □교무금: 282,500원

*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덕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상용
수녀원 53-7157

- * 축 건진 성신 칠은의 은사를.....
1. 하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40, 1-23 마르코복음12, 1-44
 2. 불우이웃 돕기 폐품수집: 미사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 모임: 성모회-공식미사후 학생회-공식미사후 청년회-공식미사후
 4. 미사시간변경: 12월 첫주부터 저녁미사가 8시에서 7시로 변경됨
 5. 감사헌금: 소재덕(토마스아퀴나스)형제님 소복림(세군다)자매님 감사합니다.
- 지난주봉헌금: 159,010원 □교무금: 480,000원

* 삼례

사제관 73-846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을수
수녀원 9-3196

1. 유아세례: 공식미사후
 2. 교무금헌납주일: 88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교무금 납부현황을 점검 합니다.
 3. 대립시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타당한 준비로 맞이 합니다. (C해 시작)
 4. 금주구역방문: 29일 6구역 1, 2, 3반 (삼례7, 8, 9지구) 30일 7구역 1, 2, 3반(원역전) 12월 8구역 4, 5반(방촌) 9구역(비비정)
 5. 미사시간 변경: 12월부터 특전 및 오후미사 오후10시 월요미사 오전 6시30분 따라서 예비자 교리반 및 Pr. 회합도 30분 앞당겨주세요.
 6. 감사합니다: 환경미화 작업에 수고하신분 정원수를 기증-전이문 형제분
- 금주전례: 특전-백남용 전영하 공식-김복동 황영순
□지난주봉헌금360,300원 □교무금: 419,000원

*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천봉
사무실 사목회장 이삼영

- * 판공성사 성경읽기 야고보서1장~5장까지
1.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후(구사제관에서)
 2. 구역장 모임: 목요일 어머니 미사후
 3. 사목회: 29일 저녁미사후
 4. 11월 구역모임: 11월 1일-두여리, 남산
 5. 금주전례: 독서①인은성 ②홍순길 봉헌-방관수 최현희부부
 6. 차주전례: 독서①이윤구 ②이명구 봉헌-윤여홍 한영희부부

*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태현
사무실 사목회장 서홍원

1. 사목회: 공식미사후
 2. 성모회: 12월 2일 10시30분 미사후
 3. 유아세례: 매월 첫주일 공식미사후
 4. 축! 결혼: 신랑-허정학 신부-김정자 신랑-허정천 신부-이정숙 장소-함열천주교회 일시-11월 27일 12시 중·고등학교생
 5. 금주판공: 30일-범성 12월1일-구산 2일-충산 3일-오후3시
 6. 연도대회: 구역 공소별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신청바랍니다.
 8. 금주전례: 해설-남용규 독서①박정근 ②이옥순 봉헌-박석규 부부
차주전례: 해설-정영옥 독서①정대홍 ②임화원 봉헌-유상준 부부
- 지난주봉헌금: 152,930원

*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김종대
수녀원 6-1539

1. 오늘은 89년(C해)이 시작되는 대립1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2. 오늘은 신설 본당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3. 꾸리아 월례회의: 오늘 공식미사후
 4. 사목회 월례회의: 다음주 공식미사후 *분과위원장님께서는 89년도 사업계획서를 지참하세요.
 5. 자도회: 12월 1일 오후2시
 6. 금주전례: 해설-김광태 독서①김정수 ②최봉옥 차주전례: 해설-최영식 진선미 독서①김종대 ②류향자
- 지난주봉헌금: 338,350원 □교무금: 527,000원

* 화산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김종길
사무실 사목회장 김상규

1. 오늘부터 대립시기입니다.
 2. 성모성심회: 공식미사후 회합실에서
 3. 예비자교리: 예비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일미사책 89년도본 오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미사시간변경: 주일 평일아침 미사 6시30분
 6. 금주전례: 컷미사-윤석일부부 공식미사-박종철부부 차주전례: 컷미사-김영자 공식미사-서백원부부
- 지난주봉헌금: 152,130원

* 황등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김순태
사무실 사목회장 장현순
수녀원 52-7634

1. 성모회: 공식미사후
 2. 추계판공 구역미사: 11, 29=1구역 11, 30=월성공소 12, 1=2구역 12, 2=3구역 12, 6=4구역 12, 7=신동공소 12, 8=5구역 12, 9=6구역 12, 13=7구역 12, 14=삼기공소 12, 15=8구역 12, 16=9구역 12, 20=10구역 *7시 판공성사 후 미사
 3. 12월 성당청소: 사도의 모후Pr
 4. 년중봉헌금: 금년도 교무금은 금년에 완납합니다.
 5. 새해예산: 각분과 부장및 단체장들은 89년도 예산을 제출바람
 6. 금주전례: 해설-류용현 독서①김낙천 ②신경자 봉헌-정귀환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용자 독서①윤석홍부부 봉헌-서복하 하금순
- 지난주봉헌금: 202,690원 □교무금: 195,000원
□특별헌금: 신동 장경남 아들혼매 감사헌금 금일봉